노스님 복지를 위한 승보공양
• ARS후원 : 060-700-1071(매월 1,000원)
• 직접신청 : 02)2011-1726, 조계종 홈페이지
대한불교조계종중앙신도회(지대)

佛敎新聞

대우투어 daeseungtour
신일상은 불자들의 여행사
여법한 순례
품격있는 여행
☎ 1577-0206 www.대우투어.com
1960년 1월 1일 창간 주간제 발행

불기 2557년 5월 15일 (2013년 / 단기 4346년 초파일 4월8일) bulgyo.com 대표전화 (02)730-4488 제2913호

불기 2557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지난 11일 서울 동국대와 종로일대를 가득 조계사에 이르기까지 연등회가 거행됐다. 종요무형문화재 지정 이후 대중 많은 관심 속에 열린 연등회에는 10만의 등불결이 서울하늘을 수놓았다. 이어 12일 조계사 앞 우왕국로에서 불교문화한마당이 펼쳐졌다. ▶회보 B16~17면

김항주 기자 ceojoe@bulgyo.com

10만 연등물결 세상에 희망을 전하다

어울림~장엄등행렬~전통문화마당
연등회, 5월 서울하늘 수놓으며
세계인이 함께 즐기는 축제로 부각

불교계 최대축제인 불기 2557년 부처님오신날 연등회가 10만 연등의 물결로 서울의 밤하늘을 수놓으며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양일간 서울 종로와 동국대 일원에서 화려하게 펼쳐졌다.

특히 종요무형문화재 제122호로 지정돼 우리나라 문화유산으로 가치를 인정받은 연등회에 국내외 시민들이 대거 동참하면서 세계적인 축제로 발돋움했다는 호평을 받았다. "세상에 희망을 마음에 행복을" 이라는 주제로 열린 연등회는 11일 오후 동국대 서울캠퍼스 운동장에 마련된 특별법단에서 봉축연희단의 화려하고 신명나는 율동이 이어진 '어울림 마당' 으로 축제의 서막을 알렸다.

연등행렬에 들어가기 전 행렬을 마지막으로 점검하고 연등법회를 통해 부처님의 재사실천을 서원한 어울림마당에는 시작대중 5만 여명이 동원됐다. 이 자리에서는 서울 주요 사찰의 어린이 청소년 대학생 청년 율동단이 그동안 갈고 닦은 춤 솜씨를 선보이며 흥을 돋웠다. 또한 야기부채놀이 등을 맞거는 관불의식을 통해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뜻을 가슴에 새겼다. 봉축위원장인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개회사를 통해 "부처님은 모든 중생들의 희망과 행복의 원천 가치를 주셨지만 아직도 우리 세간의 고통은 그칠 줄 모르고 있다" 면서 "지혜와 자비로 희망과 행복이 가득한 땅을 만들어 가는 것은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해야 할 실천" 이라고 강조했다.

연등법회에 이어 이날 오후6시 연등회의 백미인 '연등행렬' 이 시작됐다. 사찰과 불교단체, 개인이 제작한 켜켜등과 전통장엄등 10만여 개가 동국대와 동대문, 종로, 안국동 등 서울 도심을 밝히며 시민들에게 다양한 불거리를 제공했다. 행렬이 마무리되는 오후4시30분부터 종각사거리에서 꽃비가 흩어지는 가운데 출과 노래로 축제의 대미를 장식하는 '연등한마당' 이 펼쳐져 참가자들이 즐겨움을 만끽했다.

이튿날인 12일 조계사 앞길에서 펼쳐진 전통문화마당에는 1000개의 부스가 설치돼 서울시민과 외국인들이 한국불교와 전통문화를 체험했다. 특히 올해는 20개국 외국인 서포터즈 70명이 문화마당을 찾은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안내 및 통역을 담당해 행사장에서 만추드를 높이는 데 일조했다. 또 에버랜드 세쌍비음을 낳화 가족단위 참가자들이 보다 많은 행사에 참여할수록 유도했다. 공공동사거리에 펼쳐진 중앙무대에는 어느 해보다 다양한 전통문화공연이 선보였다. 종요무형문화재인 연등회의 성격을 심분 살려 강릉, 북청사자놀이, 사월역춤, 양산재, 선무도 등이 무대에 올라 한국의 고유한 전통을 세계인들에게 알렸다. 오후7시부터 이어진 산조는 율동과 춤과 운 노래 속 연등놀이를 끝으로 불기 2557년 연등회는 회향했다.

허정철 이현경 기자

세상에 희망을 마음에 행복을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대한불교조계종 Jogye Order of Korean Buddhism

부처님오신날 특집 80면 발행

5월18일(토) 총간 ~2914호는 5월22일(수) 보내드립니다.
독자 여러분의 가정에 부처님의 가피가 늘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불교신문 임직원 일동

■ 불측법어

일상생활에서 '참나' 를 찾길

진제법원
조계종 종정

부처님께서 마야부인 태중에서 나와 첫 입금 걸음을 걸으신 후, 한 손은 하늘을 가리키고 한 손은 땅을 가리키며 말씀하시기를, "하늘 위 하늘 아래 나만이 홀로 높도다" 하시니 경탄 희유하고 희유함이어, 부처님께서 전생으로부터 깨달은 진리는 일체(人)와 출태(出胎)에 걸림이 없어 광상 밝아지는 법이기 때문이로다.

우리 인생은 어디에서 왔으며 또 어디로 가는고.

영원대해(空空大海)에 한 점의 나뭇잎과 같음이로다.

우리 모든 연등이, 부처님의 깨달은 진리를 알고자함인데 일상생활 속에, "무엇에게 나가 선에 어떤 것이 참 나인고?" 하고 간절하게 의심하고 의심함지어다. 금생에 참나(眞我)를 알지 못하면 다음 생에 좋은 몸 받아 또 다시 이 법 만나기는 보장이 없음이로다.

세상 사람들이여, 부처님의 한 방울는는 은혜를 갚고자 할진대, 한 편으로는 일체중생들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아끼고, 다른 한 편으로는 일상생활 속에 "참나" 를 찾을지어다. 부처님의 깨달은 진리가 참나 가운데 다 갖추어져 있음이니, 모든 분들이 일상생활 속에 "참나" 를 깨닫게 만 사람들 진리의 국토에 이르게 하는 것, 이것이 부처님의 은혜를 은전하다 갚는 단 하나의 길이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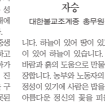
모든 국민들이시여, 남과 북의 군사적 대립이 끝으쳐 심화되고, 경제 또한 안팎으로 어려움에 봉착한 이 난국에, 모든 분들이 심사(一心)으로 하나 되어 새롭게 출범한 정부의 여람을 굳게 믿고 각자의 직분에 충실한다면, 경제와 국방이 더욱 견실해져서 하루빨리 이 난국을 헤쳐 나갈 것이며, 남북의 평화통일은 성큼 다가올 것입니다.

나아가 모든 분들이 일상 가운데 참선을 생활화하여, 인류의 정신문화를 선도하고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일등국가가 되고 일등국민이 됩니다.

불기 2557(2013)년 사월 초파일

"삶의 현장에서 이웃을 부처님으로 모시자"

■ 불측사



자승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신자들과 불자들은 보시를 하고 부처님의 가피를 기원하기 위해 우리 모두가 모든으로 반들어야 할 가치는 바로 공동체 의식입니다. 서로가 의지하며 평화와 행복을 이루는 삶생의 세계가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이웃의 도움과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늘이 있어 땅이 있고 땅이 있어 하늘이 있습니다. 물과 바람과 흙의 도움으로 만들어 생장합니다. 농부와 노동자의 땀 정성이 있기에 사람은 입을 먹고 아픈다은 정신의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따뜻한 손을 잡고 삶다가는 것이 여러분!

우리 국민과 연등가 나와가야 할 길이 이와 같이 분명하지만, 오늘의 우리 사회는 우울하고 미래는 불투명합니다. 지연생태의 재앙이 생명을 위협하고, 이민적인 전쟁이 지구촌의 평화를 위협하고, 분단의 장기화가 반목갈등체를 위협하고, 양극화가 사회공동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믿 믿고 서 있는 한 반도가 전쟁의 위협에 또다시 놓였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발원합니다. 탐욕과 증오를 내려놓고, 편견과 차별을 내려놓고, 행주어 서서 다시 바다를 것을 염원합니다.

▶2면에 계속